

“정상들 만나 글로벌 위기 풀자” G20 출범 막전막후

(2008년 금융위기)

The JoongAng Plus

사공일 회고록

경제국정, 이랬다

이명박 정부가 막 출범한 2008년 초 세계는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사태 악화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빠져들어 가고 있었다. 급기야 9월에는 미국 역사상 파산 규모로는 최대인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벌어졌다. 세계증시는 거의 반토막 났고, 세계 전체 산업 생산과 무역량은 1930년대 대공황 때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졌다. 세계 경제는 대공황 시기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국면을 맞았다.

마침 이즈음(10월 5-8일)에 세계경제회의(WPC) 제1차 회의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렸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등 세계 주요국 정상과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등이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와 세계 경제 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를 펼치게 됐다.

이 회의에 이명박 대통령도 초청받았다. 국내 일정상 참석할 수 없어, 대통령 경제 특별보좌관이었던 내가 대통령 특사로 대신 참여했다. 나는 전체 회의에서 무엇보다 사급한 것은 주요국 정상 차원의 단호한 국제공조 의지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사르코지 대통령이 9월 23일 UN 총회 연설에서 세계 경제판도 변화를 고려해 G7/G8의 확대 개편을 주장한 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그가 언급한 G13/G14에 한국이 빠진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불과 10여 년 전에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던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나라다. 게다가 최근에 외환위기를 겪었고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어 당당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은 확대된 G그룹에 우선적으로 초청돼야 할 나라임을 각인시켰다.

에비앙 회의 후에 대통령 특사로 파리에 가서 사르코지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정책을 총괄하던 장-다비드 르브 보좌관과 만났다. 그는 주미 프랑스 대사를 지낸 사르코지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관이였다. 당초 연담은 10월 7일 오후 6시 30분에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현안이었던 동유럽의 그루지야(조지아) 사태에 관해 EU 의장(당시 6개월마다 교체)이었던 사르코지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간의 통화에 배석하라는 언급은 오후 7시에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르브 보좌관에게도 두 가지 메시지를 다시 강조했다. 하루속히 주요국 정상들이 만나야 한다. 세계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공조 의지 표명이 사급하다. 자세한 후속 조치는 재무장관들에게 맡기면 된다. EU 의장인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날 필요는 오후 7시에 시작됐다.

물론 사르코지 대통령이 UN에서 언급한 G13/G14에 한국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환기했다. 이에 르브 보좌관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말한 G13/G14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2010년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위원회 개소식이 2009년 11월 서울 삼성동 금융연수원 발관에서 열렸다.

[중앙포도]

글로벌 금융위기 신속 대응

MB특사로 미·EU 핵심 참모 만나

“한국, 선진국·개도국 가교역할”

다자간 정상회의, 한국 필요성 강조

워싱턴서 첫 G20 정상회의

주요국 거시경제정책 공조 약속

“무역장벽 더 만들어서는 안 된다”

MB ‘스탠드스틸’ 만장일치 채택

논리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만담은 1시간 반 이상 계속됐다. 회의 후 르브 보좌관은 5층 사무실에서 갑자기 내려와 배웅해줬다. 그 이후 르브 보좌관은 G20 업무를 총괄하던 로런스 섬머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의장과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특별 보좌관인 존 커리프경과 함께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유치·준비·개최 전 과정에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줬다. 프랑스는 EU의 장군국에 이어 서울 G20 정상회의 전후에는 G20 정상회의 운영체제가 된 트로이카(Troika, G20 전·한·후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 후 10월 17일에 사르코지 대통령은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함께 미국으로 가서 부시 대통령을 만났다. 이들은 10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공동기자회견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곧이어 미국 백악관은 2008년 11월 15일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G20 정상회의가 공식 발족했다.

로버트 키미 재무부 부장관이 나중에 사석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밀었다고 귀띔해줬다.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1999년)부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려왔기 때문에 G20 결정에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10월 21일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로 워싱턴 개최 G20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즉각 경제 특별보좌관인 내게 워싱턴 G20 정상회의 준비업무를 맡겼다.

정부 내에 조직을 만들 거들도 없었다. 우선 외교부의 통상협상조정관과 기획재정부 국제업무정책관 등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해 G20 나라들의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파악하고 유용한 정보를 입수하도록 했다. 이와 동시에 이 분야에 서 미 정부에 영향력이 큰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프레드 버그스텐 원장에게 연락해 PIIE 전문가들의 의견과 자료를 요청했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의

정상회의를 맡고 있던 데니스 프라이스 백악관 국제경제 담당 보좌관과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 파악도 부탁했다.

이렇게 모은 자료를 기초로 약 10일 후인 11월 7일에 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G20 정상회의에 처음 등장하게 된 한국의 기본지세와 전략에 관한 제1차 독회를 가졌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G20 정상회의가 G7/G8 정상회의처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구체적 후속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기본 입장을 정했다. 그리고 당면한 글로벌 경제-금융 위기 극복과 함께 경제-금융 체제 개편 시 G20에 속하지 않는 많은 개도국과 신흥경제국을 대변하는 선·후진국 가교 역할을 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이 기본 원칙은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때까지 지켜졌다.

이런 차원에서 이 대통령은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거시경제 공조와 함께 세계 금융체제 안정을 위해 개도국·

신흥국에 유동성 공급이 확대돼야 함을 먼저 강조했다. 이어서 무역과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장벽을 더 만들지 않겠다는 ‘스탠드스틸(standstill)’ 선언을 제안했고, G20 정상들은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스탠드스틸은 워싱턴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중요한 일부가 됐다. 세계 주요 언론은 30년대 대공황 때 근린공방(近隣公房)적 보호무역주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G20 정상들의 결의 자체가 큰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다행스럽게도 G20 정상들은 합의한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09년 4월 30일 이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더욱이 G20 정상들이 기존의 G20 재무장관회의의 트로이카에게 사실상의 G20 정상회의 운영기구 역할을 맡겼다. 차기 의장국인 우리나라에게 G20 정상회의 운영과 야전다 설계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나는 미국에 남 아 각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워싱턴 G20 정상회의의 평가와 장래에 대해 의견교

환을 했다. 워싱턴에서는 로버트 윌리엄스 세계은행 총재와 존 팀스키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도미니크 스트라스-칸 총재는 해외 출장중)와 만났다. 그리고 워싱턴 회의 준비과정에 도움을 준 프레드 버그스텐과 PIIE 전문가들과도 만났다. PIIE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한국의 리더십 역할을 지원해 줄 것을 약속했다.

이어 PIIE에서 오찬 연설도 했다. 백악관, 재무성, IMF와 세계은행 고위급 인사들과 각계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경제와 G20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컸던 것이다. 먼저 워싱턴 G20 정상회의 의의와 한국의 적극적 역



2008년 11월 G20 세계금융정상회의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환영만찬을 앞두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중앙포도]

할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다양한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 한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일부 국제금융계의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재정, 금융, 외환 등 분야별 통계와 논리로 설명했다.

뉴욕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회복자문 위원장인 폴 볼커 전 연준(Fed) 의장, 미스터 뎀으로 이름난 노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월라엄 로드 시티그룹 수석부회장, 테렌스 채키 뉴욕 연준 수석 부총재 (당초 약속됐던 재무장관 지명 자티모시 가이브리 총재는 오바마 당선인이 불러 워싱턴 방문 중)와 만났다.

그리고 미국외교협회 조찬회의에서 모리스 그랜버그 AIG 회장 등 한국 경제에 관심이 큰 업계-금융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연설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금융기관 고위인사들과 오찬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주로 한국 경제의 건전성과 G20의 장래를 논의했다. 뉴요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주요 간부 기자들의 환담과 인터뷰를 마치고 귀국했다.



2008년 10월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사공일 경제특별보좌관(오른쪽)이 투마스 헨드릭 알베스 에스토니아 대통령(왼쪽), 보리스 타티 셰르비야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사공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G20 세계금융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2008년 11월 워싱턴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중앙포도]



스마트폰 카메라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The JoongAng Plus에서 연재 중인 「사공일 회고록: 경제국정, 이랬다」 시리즈를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